

무등산 도로 안전시설 미비... 운전자 불안 고조

야간 드라이브 명소로 '인기몰이' 커브·낙차 심해 추락사고 잇따라 조명시설 부족...시아 확보 어려워 '가로등 추가 설치 등 안전 확보'



지난 9일 오후 광주 북구 청풍동 청풍쉼터 삼거리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

최근 광주 무등산 일대 도로가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야간 드라이브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야간 조명 등 교통안전 시설물이 미비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찾은 광주 무등산 산장 도로. 동구 산수동에서 무등산 곳곳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최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 '드라이브 명소'로 알려져 늦은 시간에도 많은 차량이 오고 가고 있었다.

이곳 도로는 산길을 따라 조성돼 커브와 낙차가 상당히 가팔라 사고 발생에 취약한 곳이지만, 조명시설이 부족해 일몰 후 일부 구간은 가까이 있는 차선과 교통 시설물 등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다.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 시설물도 극히 일부 구간에만 설치됐으며

단속 카메라 등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방지할 시설물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구간이 시속 30km로 가속이 제한됐음에도 일부 구조변경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나 들며 빠른 속도로 추월하는 등 아찔한 곡예주행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무등산 일대 도로에서의 사고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2일 북구 화암동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에 있던 30대 운전자 A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커브 길을 내려가다 속도를 늦추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4일 북구 청풍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가 비탈길 아래로 추락해 B씨가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 역시 커브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철제 울타리를 뚫고 1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서도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12일에는 북구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C씨가 몰던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아 전복됐다. 해당 사고로 차량과 가로등이 파손됐고 C씨를 비롯한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시민들은 무등산 일대 도로 과속 주행에 따른 통행 불안과 소음공해 등 불편을 호소했다.

인근 주민 김모(54)씨는 "일부 튜닝차량 동호회의 과속 레이싱이 기승을 부려 주변 도로를 통행할 때마다 불안을 느낀다"며 "여름철 창문을 열어두면 튜닝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들어와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김대훈(26)씨는 "야경을 보기 위해 종종 무등산 일대를 찾지만, 이곳 일대는 조명이 매우 어둡고 일부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을 방지할만한 시설이 부족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곤 한다"며 "지자체와 경찰 등에서 도로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자체는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이 접수되면 가로등을 추가 설치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무등산 산길 2차로 일대에 있는 가로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능이 저하돼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민원이 접수되면 조명시설 추가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민원이 접수돼 무등산 일대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배치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자치구·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교통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시민 안전과 불편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 행위 '가결'... 파업 여부 논의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2024년 임금·단체협상 요구안 관철을 위해 파업을 전제로 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광주·곡성·평택공장 노조원 3545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3219명(90.8%)이 투표에 참여해 3104명(찬성률 96.43%)이 찬성했다. 이번 투표에서 전체 재직인원 중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쟁의 결의가 성사됐다.

앞서 협상에서 노조는 기본급 월 15만 9800원 인상과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고용안정 및 미래비전 제시, 신입조합원 및 정규직 전환자 차별 해소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노사는 지난 6월 본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12차례 본교섭, 7차례 실

무위원회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본교섭 결과 결렬을 선언,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는 조만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매출 4조 414억원, 영업이익은 매출의 10여%에 달하는 411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456억원에 이르다"며 "사측은 노조의 노력과 양보로 경영정상화와 최대 실적을 이뤄냈음을 결코 외면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률은 2024년 임·단체협 승리에 대한 조합원의 높은 열망이 나타난 것으로, 사측이 조합원의 합당한 요구를 무시한 태도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사측은 "전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



텃밭 수확

여름맞이 물놀이터와 텃밭 체험 개장식에 참가한 동구 가족단위 주민들이 지난 10일 광주 동구 내남동 도시농업 복합단지에서 옥수수 수확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과 책임을 다한 결과 지난해 뜻 깊은 경영 성과를 이뤘지만 오랜 적자로 취약해진 재무구조, 치솟는 선임과 재료비 상승 등

하반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회사는 조속히 교섭이 재개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노사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

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 노조 역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찬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